



주간통일정세 2008-51(2008.12.15~12.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5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매체, 김정일 공개활동 연 6일째 보도(12/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도자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이로써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연 6일째 자강도에서 산업시설이나 군부대 등을 현지지도나 시찰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
- 통신은 16일부터 이날까지 김 위원장의 자강도 강계시 전자업무연구소 등 강계시내 시찰, 자강도 성간군 소재 2월제강종합기업소 시찰, 자강도의 '리종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시찰, 자강도내 제955군부대 지휘부 시찰, 자강도 노동자들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을 매일 보도
- 김 위원장의 공장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김정일, 자강도 노동자들과 공연 관람(12/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노동계급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자강도의 노동계급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치켜 들고 준엄한 난국을 타개한 영웅적인 노동계급"이라며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계속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도급 기관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관람

● 김정일, 북한군 제955부대 지휘부를 시찰(1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955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부대 시찰에서 김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부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데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으며 이 부대는 북한 언론매체 보도에 처음 등장한 부대임.

- 김 위원장은 부대 군인들과 기념촬영도 했으며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리중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중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김 위원장의 이 기계공장 시찰 보도는 16일 자강도 강계시의 전자업무연구소 등에 대한 현지지도와 17일 자강도 성간군의 2월제강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에 이은 것임.
- 김 위원장은 이 공장이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해 기계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은 식당, 목욕탕, 도서관, 선전실 등을 돌아보고 공장 기술자, “노력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으며,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 시찰(12/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시를 방문, 새로 세운 전자업무연구소와 자강도 도서관, 고려약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북한 방송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를 방문, 프로그램 개발 자료전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설비상태와 연구상황을 파악한 후 도내 여러 경제부문의 정보화 실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건설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보도
- 이번 강계시 시찰에는 박도춘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주규창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 국방위원장 감사 전달(12/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철도분국 노동자 정명희씨 등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정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뛰어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해냈다고 방송은 소개



나. 정치 관련

● 南, 대화타령 말고 10·4선언 입장 밝혀야(12/20, 통일신보; 우리민족끼리; 12/19, 조평통 대변인 담화)

- 통일신보는 20일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털끝 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 없이 떠드는 대화 타령은 한갓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신문은 “집권 초기부터 6·15와 10·4선언을 부정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이 순간까지 대결정책에서 변한 것이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서도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대화의 간판 밑에 합리화하자는 것이고, 뒤에서 벌이는 대결소동도 모자라 동족과 마주 앉아서도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한 대화는 하나마나한 대화이고 안하는 것보다 못한 대화”라고 역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 南보수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 “고약해”(12/20, 통일신보;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20일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반북대결”과 “대북압살”을 위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 통일신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10.3합의에 있는 정치보상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볼 때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동족을 원수 보듯 하며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대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고약한 심보”, “망발”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한미동맹 우선론 비난(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남조선 당국의 한미관계 우선론을 단죄함’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론’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론”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은 한미관계 우선론에 바탕을 둔 “정치모략 각본”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 신발투척 봉변 부시 조롱(12/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응당한 봉변’ 제하의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때 봉변을 상세히 소개하고 “강권과 전횡으로 일관된 ‘반테러전’을 강행해온 미국 집권자가 받은



봉변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 ‘9.5담화’ 연구토론회 개최(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5일자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로 규정한 이 담화는 8월 중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인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아 김 위원장이 노동신문 및 민주조선에 보낸 것으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지난 10월10일에 북한 언론에 공개
- 토론회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

● **김정일 테러임무 南포섭 北주민 체포(12/18, 보위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18일 북한의 한 주민이 남한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파악하고 해치라는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것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주장
- 보위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얼마전 괴뢰 정보기관으로부터 우리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리모라는 자가 적발 체포됐다”며 “밝혀진 데 의하면 놈(리모)은 올해 초 범질서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우리나라의 국경 부근에 잠입해 불순분자들을 규합하고 있던 남조선 정보기관의 황모라는 자에게 흡수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보위부는 남한 정보기관은 “놈에게 일정한 훈련을 준 후 다시 우리 지역에 잠입시키면서 우리 수뇌부의 현지시찰 노정, 시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는 수뇌부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음성 및 음향수감 추적장치와 극독약까지 들여 보냈다”고 주장
- 보위부는 또 “최근에만도 괴뢰 정탐모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핵관련 정보를 내탐하려고 주요 군수공업지대의 흙과 물, 나무잎, 먼지 등 환경시료를 채집할 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첩자들이 일망타진”됐고 “부화타락한 재중 동포여성을 첩자로 흡수하여 여행기회에 당, 국가, 군사 기밀자료들을 수집하며 주요부분의 우리 일군(간부)들을 유인도주시키려던 음모가 저지 파탄됐다”고 주장
- 보위부는 이밖에도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적대 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 지하교회 결성 음모가 적발 분쇄되었으며 전과자와 타락분자들을 유인 납치하거나 회유 도주시켜 우리 공화국의 잘 날조된 인권유린 자료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꾸리려던 모략시도들이 감행되는 족족 저지 파탄되었다”고 주장



- **노동신문, 배신하지 말라(12/1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5일 '동지애의 기치 높이 억세계 전진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동지애'와 단결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 중국내 대남 경협창구 세대교체(12/21, 연합)**
 - 남북한 경제협력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베이징 사무소 및 단둥(丹東) 대표부의 지도부가 최근 비리의혹을 받고 물러난 뒤 젊은 실무 세대로 교체됐다고 남북경협관련 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가 21일 소개
 - 김 대표는 "북한은 비리 의혹이 많았던 민경련 대표들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단둥의 허광식 대표와 베이징의 허수림 소장을 물러나게 하고 젊은 경협 일꾼(간부)들을 새 대표들로 임명했다"며 "단둥은 전 셋별총회사 과장 출신인 리용남이, 베이징은 전 삼천리총회사 참사 출신인 유경종이 새 대표가 됨으로써 50대에서 40대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
 - 그는 또 "북한은 금년 6월 평양에 대남 신규사업을 전담하는 '민경련총회사'를 설립, 민경련의 단둥 대표부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만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
- **北, 전국 농업과학기술 전시회 개최(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 생산지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곡작물육종, 과학농사도입, 알곡작물재배와 농기계, 토양 및 농업화학분과 그리고 과수, 남새와 축산, 잠업분과 등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13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 자료들이 발표됐으며 129종, 260여 점의 새 품종 알곡작물, 식물성 농약, 농기계 등이 출품됐다"고 방송은 보도
- **평양 상점들에 휴대폰 가입 광고물 설치(12/21, 연합)**
 - 새해를 앞두고 방문한 북한 평양 시내 곳곳의 상점 유리 창문에는 휴대전화 가입을 홍보하는 '3세대 이동통신'이라는 글귀와 휴대전화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 있었음. 12월 15일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서비스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홍보물들이 설치되어있음.



- **北방송, 올해 철강재 생산 29% 증가(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2008년도 철광석 생산이 전년도 대비 73% 증가했고, 철강재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방송은 금속공업성 국장의 말을 인용, 철광석 생산이 이같이 증가한 이유로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설비가동률을 최대한 높였으며 은률과 재령광산은 유망한 채굴장을 마련,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인 결과라고 설명
 - 또 철강재 생산에 있어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 건설과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대형산소분리기 설치공사 완공, 보산제철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에서 새로운 “주체철 생산방법”을 도입한 결과 “성(省) 적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공업 총생산액과 주요 지표별 인민경제계획을 129% 이상 넘쳐 수행하였다”고 방송은 소개

- **北, 내년 외국인에 관광지 확대 개방(11/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의 외국인에 개방하는 관광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중국내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를 인용해 보도
 - 중국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여행사는 북한 당국이 내년 새로 개방하는 여행지는 함경북도의 칠보산과 주변지역, 청진의 해변과 황해남도 해주시, 그동안 통제했던 평양내 일부지역이라고 밝힘. 고려여행사는 올해 중국인과 미국인을 포함해 약 1천명의 해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면서 북한이 관광지역을 확대개방함으로써 2009년에도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던 아리랑 공연도 이전과 같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열릴 것이라고 중국과 미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이 전망했다고 방송은 보도

- **FAO, 北 내년 180만t 식량 외부도입 필요(11/19, 자유아시아방송)**
 - FAO는 이달 발간한 전 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009 곡물회계연도에 내부 식량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외부에서 180만톤가량의 식량을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FAO는 북한의 식량수요와 식량 생산량을 각각 512만9천t과 334만 3천t으로 추정, 180만t을 외부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예상치 45만t과 북한이 돈을 주고 수입할 식량 예상치 50만t을 감안하면 83만6천t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추산
 - * 북한은 2008 곡물회계연도에는 62만1천700t의 식량을 외부에서 지원받았고 77만t을 돈을 주고 수입



● **올해 경제성과 선전(12/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정권수립 60주년(9.9)이었던 북한의 올해 경제는 경제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창조물”을 건설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주장
- 전력부문의 성과로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첫 시찰 대상이었던 황해북도 예성강청년1호발전소의 준공을 비롯해 원산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 완공, 평안남도 녕원군의 녕원발전소 1호 발전설비 조립과 중소형 발전소들인 황해북도 연산군민발전소, 평안남도 성천발전소, 자강도 고보청년발전소 준공 등을 꼽음.
- 평양방송도 이날 “올해에만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 전기로’ 도입과 함께 부전강발전소의 대형 발전기 축 보수기술 도입, 황해남도 송배전부에서 변전소 주변압기 능력을 1.5배 향상시킬 수 있는 새 기술 창안,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기술자들의 석탄생산을 위한 새 채탄방법과 천공 발파방법 도입 등을 열거

● **北·체코, 투자 보호협정 의정서 조인(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체코가 17일 평양에서 양측 사이의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한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조인식에서는 북측의 구본태 무역성 부장과 체코측의 마르틴 톰 초 북한 주재 대사가 각각 의정서에 서명
- * 북한과 체코는 앞서 16일에는 2008~2011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 **북한 찾는 핀란드 관광객 증가(12/16, 헬싱키 사노맛 인터넷판)**

- 요즘 핀란드에는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핀란드 대표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유럽에서 가장 큰 북한 전문 여행사의 하나로 꼽히는 핀란드 올림피아 여행사 사장인 마티 팔레르마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 관광객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북한 사람들도 핀란드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지 궁금해할 정도”라고 밝힘.

● **이동통신 개통 축하연 개최(1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축하하는 연회를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오라스콧 텔레콤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과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 로두철 내각 부총리, 류영섭 체신상, 박명철 조선체신회사 사장



등이 참석, 오라스콤 텔레콤 대표단은 이날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비행장에서 박명철 조선체신회사 사장과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대표단을 전송

● **北약학연구소, 잇단 신약 개발(1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파낙사디올 주사약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생산된 주사약은 강한 면역부활제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를 막는다”며 “백혈구 감소를 막고 사람들의 면역기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화방지, 식물신경실조증, 동맥경화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올해 체육인들 훌륭한 성과(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선수들이 올해 여러 국내외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신기록을 세우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주장, 통신에 따르면 올해 성적이 좋은 분야는 여자축구로,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열린 17세 이하 여자청소년월드컵에서 미국을 꺾고 초대 챔피언이 됐으며,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에서도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다시 우승,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박현숙, 홍은정 선수가 여자역기 63kg급과 여자체조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
- 또 제5차 세계여자권투선수권, 제11차 아시아마라톤 선수권대회, 제1차 국제권투연맹위원장컵, 제8차 청소년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제4차 아시아태권도 선수권을 비롯한 국제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교육후원기금 후원 올해 최다(12/20,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은 올해 국내외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과 물자를 제공받았으며,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0일 보도, 이 기금은 북한이 교육기관 후원을 위해 2005년 1월26일 설립한 민간단체임.
- 조선신보는 올해가 기금에 대한 “물자와 자금의 기증이 가장 많았던 해”라며 기금이 캐나다.조선인기독교경제인협회, 스위스·베트남소규모 대상재단, 호주 마라나타신용그룹, 프랑스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가톨릭위원회(CCFD), 북한 주재 독일 대사관, 중국선양박원상무유한공사 등 많은 단체, 인사들과 협조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언
- 량학순(53) 초대 기금회장은 “수많은 국내 기관, 단체가 자금과 물자를 회사했고, 해외동포들과 30여개 나라의 단체와 인사들이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힘. 기금은 현재 후원금으로 교사(校舍)와 기숙사의 건설 및 개선보수,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교육설비 제공



- 등 60여개 대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기금은 또 2기 사업방향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조건과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 특히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평양 영어·컴퓨터 교원재교육강습소 건설, 농업대학·전문학교의 실험실습 조건 개선, 소·중학교와 교원대학, 사범대학의 외국어교육 조건 개선 등을 발표
 - 한편 기금은 최근 평양에서 17개 기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총회를 열어 채량일씨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사 4명도 새로 뽑았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채 신임회장은 30여년 간 내각 교육성에 근무하면서 국장, 해외대표부 참사직 등을 역임
- **北, 11월에 5천만그루 식수(12/19, 조선신보)**
 - 북한에서 11월 한달간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벌여 5천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도로 건설과 관리, 강·하천의 정비가 이뤄졌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함경남도는 수십여 정보(1정보는 3천평)의 소나무숲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잣나무숲으로 개조하고 수십의 나무 종자를 채취했으며, 황해북도는 지력이 낮은 양묘장 토지를 지력이 높은 토지로 바꾸고 수십의 나무 종자를 채취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올해 태권도 최우수선수·감독 선정(12/19,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는 올해 태권도 최우수 선수로 남자 박영범(23,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 리철옥(23,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박철(18, 평안남도 태권도선수단), 리향미(18,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를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이 위원회는 또 최우수 감독으로 한충일(33,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김영순(38, 평양시 태권도선수단), 정휘성(31,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리춘희(34,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를 선정
 -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은 올해 제4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4월, 카자흐스탄)와 제8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9월, 우즈베키스탄)에 출전해 각각 국가별 종합 1위를 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北음악계, 올해 흐름은 기존가요 재창작(12/18, 조선중앙방송)**
 - 올해 북한의 음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한 가요들을 독창과 합창곡 그리고 기악과 성악을 결합한 다양한 형식으로 재창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방송은 “올해는 음악예술에서 큰 전진을 가져온 특기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몇달동안에만도 ‘충성의 노래’를 비롯하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되리라’, ‘전사의 염원’,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와 같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가요들이 새로운 명작으로 재형상되었다”고 주장
 - 11월 초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앙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때



이를 관람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술인들이 최근 시기 새롭게 창작한 ‘눈이 내린다’, ‘변영하라 조국이어’, 여성 3중창 ‘강선의 노을’은 주체음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선군시대의 특출한 기념비적 대결작”이라고 평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 대한 ‘문예사상연구모임’이 평양에서 열리기도 했음.

- 방송은 또 가요 재창작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 조선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체에서 “당과 수령을 칭송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투쟁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음악작품”을 대거 창작했다고 보도

● 北, 고구려 유적 잇따라 발굴(12/15,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발굴팀이 잇달아 고구려 유적지 발굴에 성공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 아양리와 월당리 지구에서 고구려 남평양 유적에 대한 조사발굴을 진행하던 과정에 고구려 토성 2개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로시설을 찾아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라이스, 北 아무도 신뢰 안해(12/20, 미국의소리방송)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9일 미국 민간정책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의정서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핵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미국의 중유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그는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문서와 표본을 넘겨받은 후 솔직히 북한이 벌이고 있을 수 있는 행동들 중 일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이 커졌다”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
- 그는 미국이 핵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를 이유로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불능화와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은 원하는 중유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 호주-뉴질랜드, 대북 중유 대납 보류(12/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핵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힌 이후 일본 대신 중유 지원국으로 거론됐던 호주와 뉴질랜드도 잠정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익명의 호주 외무부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가 6자 회담의 성공적 합의를 위해 일본 대신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일본, 한국과 논의해왔지만 6자회담이 결렬된 현 시점에서 지원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릴 때까지는 호주 정부가 북한에 중유를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사
- 호주와 함께 중유 지원국으로 거론됐던 뉴질랜드의 데이브 코트니 외무부 대변인도 대북 중유 제공 문제를 놓고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해왔지만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5일 RFA에 밝힘.

● 北, 현 시점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원치 않아(12/17,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북한은 미국과 합의했던 검증의정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밝힘. 힐 차관보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베이징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에 대해 언급
-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미국의 차기정권과 협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비핵화 3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불능화와 중유공급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6자회담 결렬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중유지원 문제와 관련, “80만t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도 약속을 거의 다 지켰고, 나머지 20만t도 6자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 문제는 검증의정서 문제만 해결되면 해소될 사안”이라고 언급
- 힐 차관보는 검증의정서에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신고한 30kg의 플루토늄의 양이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中, 대북 중유지원 계속 의사 표명(12/16,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화의 대가”라고 밝혀 중유 지원을 계속할 뜻을 내비침.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



기로 했으며 이는 북한 외에 나머지 5개국과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힌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10.3 합의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

- 류 대변인은 “여러분은 이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성명에는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10.3 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고 언급
- 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문제에 언급, “6자는 모두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은 참가국들과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국 간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

● 對北 중유지원 중단 러시아와도 합의(12/15, 미국무부 부대변인)

-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유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러시아의 합의설 부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
- 로버트 우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중유지원)에 대해 다른 4개국 대표들과 논의했으며 검증의정서 합의가 없으면 미래의 에너지 선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 조건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러시아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유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료 선적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이해가 있었다고 전언
- 우즈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핵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6자회담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난국이 타개되기 전까지는 선적 문제에서 앞으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핵검증의정서 합의와 중유지원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美, 올해 대북의료지원 400만 달러(12/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올해 북한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작년의 40배인 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0일 보도



-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금액은 단 1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0만 달러를 미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힘. 이 관리는 의료 지원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에는 단지 홍수 피해에 대한 의약품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북한 병원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기술지원 그리고 북한 의료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北-美, 평양서 한국어 감시요원 입북 논의중(12/19, 자유아시아방송)**
 - 커트 통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분배와 감시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방송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 대표단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세계식량계획(WFP) 요원에 대한 북한의 입국사증 발급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북한측이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 식량의 선적을 중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언
 - 북한측은 지난 5월 미국과 맺은 의정서에 포함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배치’는 자신들이 WFP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모두 14만3천330t의 밀과 옥수수를 북한에 전달했으나 북한은 예정보다 식량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고 알려짐.
- **北평양예술단, 2009년 3월 美방문 가능성(11/17, 연합)**
 - 북한이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내년 평양예술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외교관이 17일 밝힘.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날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아마도 그들(평양예술단)이 (내년) 3월 미국에 갈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이 외교관은 세부 방문 계획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
- **美 대북 지원 6번째 선적분, 12월중 도착(12/17,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가운데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12월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이번 지원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배분을 맡음.
 -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식량배분 감시문제에 관한 북한측과의 이견으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잠정중단했다고 최근 보도했으나 미 정부는 이를 부인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협조로 지난 두달간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식량지원 활동을 계획



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며 “가장 외진 지역에도 식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세세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으며 활동 장비도 다 구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언

● 북미관계, 美 태도에 달려(12/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무엇을 노린 보고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하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미 호전세력들이 떠드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은 완전히 허구이고 저들의 대조선 침략정책과 ‘반테러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 하원의 한 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대해 북핵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조(북)미 적대관계를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향후 북미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신년 연하장(12/17, 조선중앙방송)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방송은 2009년 새해에 즈음해 후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이 16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통해 북한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 최태복, 中공산당대표단 면담(12.15,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15일 중국 윈난(雲南)성위원회 리기향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공산당 친선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리 단장은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을 비롯해 중국에서 열린 행사들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

라. 북·일 관계

● 日, 에너지지원 제3국 전가는 무책임(12/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훼방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핵 10.3합의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 신문은 “10.3합의서에는 일본도 포함한 5자가 에너지 제공 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서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합의서에 배치되게 자기의 의무 이행을 지독하게



거부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

마. 북·러 관계

●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강 러-조선선협회 대표단 방북(12/20, 조선중앙통신)

-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페도소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강 러-조선선협회 대표단이 북측 관계자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北, 남북관계 중대기로...근본문제부터 풀어야(12/18, 연합)

-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은 18일 이틀간의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마치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려야 한다”고 밝힘. 김 국장은 17일에 이어 18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둘러본 뒤 문무홍 공단 관리위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언
- 김 국장이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존중 및 이행에 바탕한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김 국장은 또 “기업 법인장들이 자기 할 바를 잘 해야겠다”며 “현재 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잘 개척해 나갈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등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 하길 바라는 듯한 언급도 했던 것으로 전해짐.
- 군부 일행은 이와 함께 문 위원장 등 개성공단 관리위 측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측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 김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지난 11월 6일 북한 군부가 1차로 실태조사를 했던 때에 비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게 기업인들의 반응”이라면서 “다만 공단 관리위 측에는 좀 더 원칙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전언

● 월드비전, 평양서 남북농업협력 토론회 개최(12/17, 연합)

- 북한에서 씨감자 생산, 국수공장 건립, 채소온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해온 월드비전이 18, 19일 이틀간 평양에서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농업과학심포지엄을 열어 남북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심포지엄엔 남측에서 박효근 월드비전 농업연구소장, 박권우 고려대



교수, 윤태명 경북대학교 교수,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북측에선 농업성과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각각 참석, 박종삼 회장을 포함해 41명으로 이뤄진 월드비전 대표단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

● **남북협력기금 18년간 총 8조2천억원 집행(12/15, 통일부)**

- 통일부가 15일 펴낸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정부는 총 9조3천22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이 중 8조2천267억원을 집행,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 설치 후 18년간 약 8조2천억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 이 가운데 다자간 북핵 협상 틀에서 합의된 대북 경수로 제공에 투입된 4조3천405억원과 기금관리비, 대출금 회수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로 쓰인 액수는 3조8천483억원에 달함.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숙 “북핵서 ‘모호함’ 더이상 도움안돼”(12/18)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민감한 이슈를 헤쳐나가기 위해 과거에는 모호함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동아시아재단 등의 주최로 열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평양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도 모호한 형태로 또 다른 양보를 얻으려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검증은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들로 구성돼 있어 본질적으로 모호함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주요 쟁점을 두고 침예한 신경전을 벌일 때면 ‘건설적인 역할’을 내세운 한국이 나서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통해 돌파구를 연 경우가 적지 않았음. 지난 12일 끝난 6자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북핵 검증의정서 타결이 추진됐지만 시료채취 등에 대한 북한의 반대로 결렬됐음.
- 김 본부장은 “북한은 북.미 간에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핵 능력이 공개될 시료채취의 문서화에 반대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린 이번 검증합의 실패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러-美, 베이징 6자회담 결과 놓고 설전(12/17)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 후 귀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당사국 간의 합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번 베이징 회담 내용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이미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당사국들은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라면서 “북핵 진전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져야지 우회로를 찾으려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베이징 회담이 끝나고 지난 13일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결코 대북 중유제공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미 국무부도 이에 질세라 15일 다시 “중유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료 선적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이해가 논의과정에서 있었다”면서 러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 힐 “北, 현 시점서 검증의정서 채택 원치않아”(12/17)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북한은 미국과 합의했던 검증의정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베이징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미국의 차기정권과 협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비핵화 3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불능화와 중유공급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지난 6자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미래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과학적 절차 등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증의정서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는 6자회담 결렬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중유지원 문제와 관련, “80만t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이 약속을 거의 다 지켰고, 나머지 20만t도 6자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 문제는 검증의정서 문제만 해결되면 해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검증의정서에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신고한 30kg의 플루토늄의 양이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WSJ “라이스, 북핵폐기보다 외교 우선시한 게 패착”(12/17)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패착은 외교적 진전의 모양새를 진정한 핵



폐기보다 우선시한 것이라고 지적.

-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라이스 장관이 차기 정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적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4년의 임기를 보냈다는 점에서 지난주 대북 외교의 최종적인 파국은 주목할만하다면서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지난주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은 전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약속했던 핵검증 실행에 관한 구두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는 구두 약속을 무시 대통령이 10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토록 하는데 활용했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북한은 이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조차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이런 북한의 행동은 아마도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를 제외하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북한은 구두건 문서건 간에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북한의 협상 습관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약속을 했다가 이를 뒤집고 미국이 더 큰 양보를 제안할 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석.

● 라이스 “임기 끝까지 북핵 검증안 문서화 노력”(12/17)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은 핵 검증안을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제외한 5개 참가국들이 모두 합의하고 북한 역시 최소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전에는 동의한 검증안과 언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풀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 대한 단계적 불능화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 플루토늄 문제 처리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북핵 검증안 마련이 북핵 문제의 근본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北-이란 핵개발, 폭발적 핵확산 조장” <美보고서> (12/17)

-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핵확산을 촉발시키고,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게 될 것이라고 미의회 보고서가 15일 지적.
- ‘미국의 전략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리처드 닉슨 행정부(공화당)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등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했음.
- 보고서는 테러리스트 그룹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전략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은 핵보유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핵비확산을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단은 결여돼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은 분명히 다자적인 노력이 돼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지금까지 북한(핵)을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 “對北 중유지원 중단 러시아와도 합의된 사항” <美 국무부> (12/16)

-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유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러시아의 합의설 부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중유 지원)에 대해 다른 4개국 대표들과 논의했으며 검증의정서 합의가 없으면 미래의 에너지 선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 조건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러시아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서를 이야기한다면 없었다”면서도 중유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료 선적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이해가 논의과정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이어 핵검증의정서 합의와 중유지원을 연계해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핵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6자회담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난국이 타개되기 전까지는 선적 문제에서 앞으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북한의 지도자가 절차를 시험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절차를 시험하려 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나 차차기 대통령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구조를 인내심을 갖고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이라는 절차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동반자들이 굳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올해 대북의료지원 400만 달러(12/20)

-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금액은 단 1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0만 달러를 미국내 민간 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 관리는 의료 지원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에는 단지 홍수 피해에 대한 의약품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북한 병원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기술지원 그리고 북한 의료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대북 의료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북한 의사들에 대한 의료, 기술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 정부는 현재 미국내 4개 민간단체와 함께 10여 곳의 북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의료지원(1단계-전력지원, 2단계-의료장비 지원)을 내년 초까지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RFA는 덧붙였다.

● 라이스 “北 아무도 신뢰 안해”<VOA>(12/20)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핵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미국의 중유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VOA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19일 미국 민간정책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의정서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문서와 표본을 넘겨받은 후 솔직히 북한이 벌이고 있을 수 있는 행동들 중 일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이 커졌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검증의정서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모호한 점이 있으며, 북한은 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점들에 대해 문서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미국이 핵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를 이유로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불능화와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은 원하는 중유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라이스 장관은 또 회견에서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을 막고 핵시설 불능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여전히 가치있는 외교적 틀”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그는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밝혀졌다”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검증의정서를 확립하고 북핵 개발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北, 美본토 도달 미사일 제조능력 보유” <美태평양사령부>(12/20)

- 미 태평양군사령부는 19일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제프 브레슬로 태평양군사령부 공보담당관(해군 대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티머시 키팅 태평양군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키팅 사령관이 언급한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제조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미사일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브레슬로 담당관은 “키팅 사령관의 발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키팅 사령관이 전달하려 했던 정확한 뜻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제조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앞서 키팅 사령관은 전날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 태평양사령군 관할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 “북한에 도덕적 굴복은 안돼” <WP칼럼>(12/19)

-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인권문제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이클 거슨은 19일 ‘평양에 대한 도덕적 굴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가 북한 또는 쿠바, 이란과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인권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외교적 접근은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는 걸맞지 않고 위선이라는 지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슨은 북핵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는 인권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언급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결함이 있다고 해도 품격이 있는 나라지만, 북한은 거대한 수용소”라고 지적했음.
- 그는 “미국의 인권상황과 북한을 비교하는 일은 국가적인 수치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엄청난 인권적 고통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며 “도덕적인 일에 눈감아주는 일을 외교적 정교함으로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과의) 협상 실패가 그런 협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힐 차관보의 접근방법은 엄청난 비용을 안겨줬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음.
- 거슨은 북한이 플루토늄 30kg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힐 차관보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종의 ‘뇌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음.

● “美정책전환 첫 걸음.. 북미 양자구도 부각” <조선신보> (12/19)

- 올해 북미관계는 “적대관계 청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속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의 첫 걸음”을 뒀으며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북미 양자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했음.
- 신문은 올해 북미관계는 “10.3합의 이행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합의에 따르면 각측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속한 행동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선의 핵시설 무력화를 제외한 나머지 5자의 합의사항 이행은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대조선 정책에 관한 부시 정권의 새로운 시도가 국내외에서 반대를 받고 정권내 협상파들의 행보를 봉쇄하는 인위적인 난관이 조성된 데 있었다”고 신문은 말했음.
- 신문은 북한이 약속한 조치와 5개국의 경제보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병행적으로 이행하기로 돼 있는데 반대세력들이 걸림돌을 놓았다”며 “처음에는 핵신고서에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협조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가 핵신고서 문제가 타결되자 “핵신고서 검증문제를 꺼내 또 다시 장애를 조성했다”고 말했음.
- 신문은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은 올해 10월 대조선 정책을 전환시키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전략을 구사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6자 중에서는 조선의 의무



이행이 항상 제일 앞섰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시 정권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임기의 전반기에 시간 허비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 “北평양예술단, 내년 3월 美방문 가능성” <北외교관>(12/18)

- 북한이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내년 평양예술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외교관이 17일 밝혔다.
-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날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아마도 그들(평양예술단)이 (내년) 3월 미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하노이 오페라극장에서의 공연은 30명의 단원들에게 더욱 넓은 국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 “美 대북 지원식량 6번째 선적분 이달중 도착”(12/18)

-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가운데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이달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 이번 지원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배분을 맡음.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식량배분 감시문제에 관한 북한측과의 이견으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잠정중단했다고 최근 보도했으나 미 정부는 이를 부인했음.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협조로 지난 두달간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식량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며 “가장 외진 지역에도 식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세세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으며 활동 장비도 다 구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 北매체 ‘北 핵무기 보유’ 美문건 부각시켜(12/17)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등이 잇따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미국에서 조선(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식문건들이 연이어 발표돼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외신보도 동향을 소개했음.
- 통신은 “얼마 전 미 국방성이 조선을 아시아 대륙의 5대 핵무기 보유국의 하나로 명기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미 국방장관도 한 출판물에 기고한 논문에서 ‘조선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도 ‘세계추세 2025’라는 전망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기했다”고 상기시켰음.



- 통신은 이어 “많은 나라 통신, 신문, 방송들은 ‘미 국방장관이 조선의 핵폭탄 제조를 기정사실화해 언급한 것은 처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결론일 수 있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조선과 공존하기로 정책변화를 한 것 같다고 평했다”고 주장했다.
- 통신은 또 “외신들은 앞으로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기초 위에서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핵전파 방지를 추구하자고 할 수 있으며 6자회담도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핵군축 회담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데 이어 국가정보위원회가 ‘세계 동향 2025’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했으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으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수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 WFP “내년 대북 식량지원에 3억4천여만달러 필요”(12/17)

-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에 77개국 약 1억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52억달러의 기부를 각국 정부에 호소하면서 북한 지원몫으로는 3억4천600만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WFP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북 지원액 3억4천600만달러는 북한내 취약계층 주민 약 560만명에 대한 식량지원에 필요한 액수. WFP는 식량과 비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지원 재원이 바닥났으나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식량원조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증가하고 있어 식량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 “힐, 오바마 정부에서 특사 가능성”<WP>(12/16)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 특사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5일 보도.
-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무부가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의 문제지역을 담당할 ‘특사(special envoy)’ 선정을 진행 중이라면서, 힐 차관보가 특사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美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중단안했다”<RFA>(12/16)

-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했다는 최근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이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가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



에 식량배분의 감시체계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음은 시인했다고 덧붙였음.

- 현재 미국은 북한 당국이 WFP 요원에게 입국사증을 신속히 내주고 이미 합의한 대로 WFP나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요원의 숫자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들 문제를 북한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

● 워싱턴포스트, 사설서 北 인권유린 강하게 비판(12/15)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주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26)씨의 신산한 삶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음.
- 포스트는 15일자 신문에 게재한 ‘옥수수 세 알’(Three Kernels of Cor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똥 더미 안에서 옥수수 낱알 3알을 발견해 배고픔을 달랬다는 신씨의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성이라는 북한정권의 추한 진실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는 지난 11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한 신씨의 수용소에서의 삶과 탈출과정, 남한에서의 삶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북한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전한 바 있음. 이 신문이 이처럼 잇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 사설은 “정치범 수용소가 역사책에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신동혁씨의 삶은 우리에게 추한 진실을 상기시킨다”며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야만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사설은 “현재 신씨가 사는 한국에서 그의 비망록이 500부 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끔찍하다”며 한국인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고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에 엄청난 통일 비용을 전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 포스트는 또한 “정권이 믿을 만한지 여부는 그 나라가 자국민을 학대하는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강조하고 “인권유린의 공포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탈북자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더욱 관심을 쏟을 것을 촉구했음.

● 부시 “김정일 북핵 폐기 절차를 시험하려 한다”(12/15)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을 통한 핵무기 폐기라는 절차를 시험하려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북한의 지도자가 절차를 시험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절차를 시험하려 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나 차차기 대통령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구조를 인내심을 갖고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이라는 절차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동반자들이 굳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 아프간 수도 카불 인근의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한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수백명과 만나 “우리의 행동 근거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간에서 성공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그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병력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임. 그리고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에 추가 파병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도록 할 수 있다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지역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아프간 사태 해결에 여전히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음.

● 北 신문 “북미관계, 美 태도에 달려”(12/15)

-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미국 하원의 한 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대해 북핵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조(북)미 적대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향후 북미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무엇을 노린 보고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하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미 호전세력들이 떠드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은 완전히 허구이고 저들의 대조선 침략정책과 ‘반테러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대화는 정세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긴장 격화는 조미 적대관계를 군사적 충돌계선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며 “지금까지 계속된 조미대화과 6자회담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미국이 대화의 막 뒤에서 힘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위적 국방력 강화로 더욱 떠미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 증유지원 계속 의사 표명(12/16)

- 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화의 대가”라고 밝혀 증유 지원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음.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대북 증유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는 북한 외에 나머지 5개국과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힌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10.3 합의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음.
- 류 대변인은 “여러분은 이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성명에는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10.3 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증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고 말했음.
- 친강(秦剛) 외교부 부대변인도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기자들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 “핵의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日, 에너지지원 제3국 전가는 무책임”(12/16)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북핵 10.3합의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
- 이 신문은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휘방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0.3합의서에는 일본도 포함한 5자가 에너지 제공 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서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합의서에 배치되지 자기의 의무 이행을 지독하게 거부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음.
- 신문은 이어 일본이 호주 등의 대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나라에 6자회담 유관국의 의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고약한 휘방꾼은 회담 참가 자격을 잃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마. 기타

● 北 김일성, 74년 美에 비밀정상회담 제안(12/21)

-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직후인 지난 1974년 8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루마니아를 통해 제럴드 포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비밀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서 드러났음.

- 김일성 주석은 집권내내 반미(反美)노선을 중요한 통치기반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외교관계도 없을 뿐만아니라 ‘월쑤’로 내세워온 미국에 대해 비밀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미 정부가 당초 ‘1급비밀(Top Secret)’로 분류했다가 지난 6월 비밀해제, 최근 공개한 포드 당시 대통령과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 특사였던 바실 폰간 대통령 고문의 1974년 8월 27일 백악관 대화록(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에서 드러났음.
- 대화록에 따르면 폰간 고문은 “북한 지도부가 토의를 위해 미국과 비밀접촉을 갖기를 원한다(The North Korean leadership wants to have confidential contacts with the United States for discussions.)”면서 “그들이 루마니아에 (이를) 제의했다(They have suggested Romania.)”라고 전했다.
- 폰간 고문은 이어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만약 당신(포드 대통령)이 그것(비밀회담)을 원한다면 돕겠다고 제안했다(President Ceasescu has offered to help if you want to do it.)”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당시 포드 대통령은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감사한다(We are grateful your offer.)”면서 “키신저 국무장관과 내가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Secretary Kissenger and I will discuss it in detail.)”고 답변했음.
- 포드 대통령은 또 “그런 접촉에 앞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Certain things must precede such contacts.)”면서 “우리는 확고한 양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끼어들지 않을 것(We don’t want to go in without firm understandings.)”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키신저 장관이 루마니아 대사를 접촉할 것(Secretary Kissenger will contact your Ambassador)”이라고 북한 김일성 주석의 비밀정상회담 제의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음.
- 이에 대해 동석하고 있던 당시 키신저 국무장관은 “우리가 얘기를 나눈 뒤 당신 나라 대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폰간 고문도 “북한측에 이를 전달하겠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두 정상간 대화를 정리한 미 외교문서(Memorandum of Conversation)는 “코리아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김일성에게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포드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 또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차우세스쿠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긴장도 원하지 않고,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탈북자 19명 미얀마서 체포돼 재판” <RFA> (12/20)
 -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9명이 미얀마에서 체포돼 다음주 중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RFA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지난 2일 중국에서 쾌속 보트로 메콩강을 타고 내려와 태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삼엄한 검문으로 인해 진입에 실패하자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지역 강가에 내렸다가 미얀마 이민국에 체포됐음.
 - 이들 중에는 65세 가량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이, 남성 4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주장했다.
 - 또 이들은 이민국 수용소에서 열흘 동안 지내다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미얀마의 지방 대도시인 쟈퉁에 소재한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주 중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
 - RFA는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미얀마 당국에 협조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태국 북부에서 탈북자를 돕는 한 관계자는 “이들의 목적지가 미얀마가 아니라 태국이었다는 것을 미얀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미얀마 법은 불법입국자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 재판 결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최성용씨 “北보위부 발표 ‘간첩’은 내 조직원”(12/19)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9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가 전날 적발·체포했다고 주장한 남한 정보기관의 대북 간첩들은 자신과 연계된 사람들이며 남한 정보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최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보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 파악과 테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북한 주민 ‘리모’씨와 리씨를 포섭한 남한 정보기관원이라고 발표된 ‘황모’씨는 모두 자신의 대북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 그는 리씨는 평안북도 신의주보위부 소속이고 황씨는 남측 정보기관 요원이 아니라 조선족이라며 이들은 김 위원장의 동정 파악이나 테러 활동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가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 보위부에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은 지난해말이나 올해초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 보위부가 발표한 일부 다른 ‘간첩’사건들도 남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관여한 것이며 수년전 일이라고 주장했다.

- 北 “김정일 테러임무 南포섭 北주민 체포”(12/18)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18일 북한의 한 주민이 남한 정보기관 요원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파악하고 해치라는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것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주장.



- 보위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얼마전 괴뢰 정보기관으로부터 우리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리모라는 자가 적발 체포됐다”며 “밝혀진 데 의하면 놈(리모)은 올해 초 법질서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우리나라의 국경 부근에 잠입해 불순분자들을 규합하고 있던 남조선 정보기관의 황모라는 자에게 흡수됐다”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보위부는 남한 정보기관은 “놈에게 일정한 훈련을 준 후 다시 우리 지역에 잠입시키면서 우리 수뇌부의 현지시찰 노정, 시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는 수뇌부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음성 및 음향수감 추적장치와 극독약까지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 “북한 찾는 핀란드 관광객 증가” <핀란드 언론>(12/18)

- 핀란드 한 은행에서 중견 간부로 근무하는 페카 야르벨라씨는 아내 생일 선물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 지난가을 부부동반으로 북한을 방문했음.
- 요즘 핀란드에는 페카 야르벨라씨 부부처럼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핀란드 대표 일간지 헬싱킨 사노맛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유럽에서 가장 큰 북한 전문 여행사의 하나로 꼽히는 핀란드 올림피아 여행사 사장인 마티 팔레르마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 관광객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북한 사람들도 핀란드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지 궁금해할 정도”라고 밝혔음.
- 그는 “철저하게 통제된 여행을 하며 정해진 코스만을 도는 여행이었지만 연출되지 않은 다른 모습도 때때로 엿볼 수 있었다”고 여행기에서 밝혔음. 특히 기차로 단둥에서 평양시로 이동하며 목격한 충격적인 모습은 평범한 핀란드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충분했음. “철조망은 없지만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군인에 둘러싸여 자그만 곡괭이로 바위를 깨는 심하게 여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며 이것이 북한이 애써 부정하던 강제 수용소라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그는 진술했음.
- 그는 “생각보다 신변이 안전했으며 사람들도 활기찼다”며 북한 여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심지어는 몰래 찍은 사진을 숨기며 출국할 때의 긴장감조차도 ‘색다른 경험’의 하이라이트인 듯,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음.

● “탈북 여성 1명 라오스 수용소서 사망”(12/18)

-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 라오스에서 붙잡힌 한 여성이 현지 수용소에서 숨졌으며, 함께 붙잡힌 탈북자 2명은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태(38) 전도사가 18일 주장했다.

- 김 전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국제통화에서 “라오스 국경지역인 보텐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북 여성 김경희(27)씨가 지난 14일 갑자기 각혈하면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김 전도사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탈북자 부부 2명과 함께 북한을 탈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가려다 최근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붙잡혀 보텐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음.
- 수용소측은 지난 13일 이들에게 “15일까지 벌금 2천5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이들은 외부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체 해결을 시도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 그는 “나머지 탈북자 부부도 강제송환돼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처벌과 고초를 두려워해 14,15일께 쇠붙이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배가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며 “이러한 소식은 수용소 경찰과 수감자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라오스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측은 “라오스 정부와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못한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 이집트 오라스콤, 北 이통.건설.은행 진출(12/16)

- 북한 무역은행과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오라은행이 16일 평양에서 문을 열었음. 오라스콤은 이미 북한내 이동통신 사업과 류경호텔 건설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음.
- 개업식에서 북한의 오광철 무역은행 총재는 “무역은행과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사이의 협력에 의해 오라은행이 개업했다”며 “은행이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스콤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은행이 이집트 인민과 조선 인민 사이의 이해와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당초 오라스콤이 투자했다가 프랑스 라파즈사에 지분을 넘긴 상원세멘트공장에서 2010년을 완공 목표로 설비갱신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埃투자 北이동통신 이름 ‘고려링크’(12/16)

- 이집트 이동통신 회사의 대규모 투자로 북한에서 시작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름은 ‘고려 링크 (Koryo Link)’라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이 신문은 고려링크의 마크는 천리마의 이미지라며 “천리마 속도로 더 높고 더 빨리 정보통신 부분의 현대화를 위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이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만든 합작회사의 이름은 ‘체오’. 체오는 현재 12만6천명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수요에 맞게 능력을 제고하여 봉사 영역도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 이동통신 개통식에서 오라스콤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조선의 모든 인민들에게 ‘고려 링크’의 이동통신 봉사가 가닿을 때까지 협조를 계속해 나갈 의향과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정보통신 수요의 잠재력을 언급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12/15)

- 북한에서 이집트 오라스콤텔레콤이 투자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3세대(3G) 이동통신은 휴대전화로 음성 통화는 물론 문자와 영상까지 송수신 가능하지만, 북한에서 개시된 서비스는 음성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류영섭 체신상과 투자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재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도 초청해 개통식을 열었다.
- 오라스콤측은 이날 개통식 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개통식에서 북한의 박명철 조선체신회사 사장은 “3세대 이동통신 봉사가 시작됨으로써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북한 체신성 부상으로도 북한 언론에 보도되는 박명철 사장은 또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조선(북한)과 이집트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할 일념을 안고 기울인 사위리스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깃들여 있다”면서 “조선체신회사와 오라스콤사 사이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 사위리스 회장은 축하연설에서 북한과 이집트가 “친선적이며 협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정부사이트 ‘동해’ 단독 표기(12/18)

- 미국 정부 사이트인 ‘가상 통역센터(www.nvtc.gov)’가 ‘동해’를 단독 표기했다.



라고 선을 그었음.

- 공화당 로버트 밥 의원은 미국 쇠고기 한국 시장 재진입을 상기하며 “미국 새 정부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방 “아프간 軍양성 위한 한국 지원 요청”(12/15)

- 미국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임이 확정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군(軍) 양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게이츠 장관은 지난 4일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이툰 사단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감사하고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마친 데 축하한다”며 “아프간 군 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아프간 군 양성을 위한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한국군이나 경찰을 파견해 달라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도 같은 날 가진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아프간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음.
- 이는 미 국방부 관계자가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치안분야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가운데 나와 주목됨.

● 국방부 “美, 아프간 공식 지원요청 없었다”(12/15)

- 국방부는 15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송봉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재건지원, 군정 훈련과 관련된 교관 파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미측 방안을 청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송 정책관은 이어 “이라크가 안정되니까 아프간 안정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국제사회도 여러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게 다 알려진 미국의 입장”이라며 “경찰을 파견하는 문제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파병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다만 “미측에서도 가능하면 우리도 우방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최대한 지원해주길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음.
- 송 정책관은 또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언급,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결



정할 계획”이라며 “소말리아 (해군)파견에 대해서도 미측에서도 한국도 가능한 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미 국방부 합동군사령부 등의 북한 핵보유국 언급 문제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번 회의에서도 분명히 재천명했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金통일 방중, 대북 현안 논의(12/21)

- 주중 한국대사를 지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중국의 고위 인사들과 대북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1일 방중했음.
- 김 장관은 이날 낮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주중 대사직 이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다시 찾았으며 주중 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음.
-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아 전임 주중대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김 장관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과 잇따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이외에도 장팅옌(張庭延) 초대 주한 중국대사와 인민의 교학회 관계자 등 지인들과 한인회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
- 그는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
- 정부와 한국대사관 등은 김 장관의 이번 방중에 특별한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급히 장관에 임명되면서 귀국 당시 지인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음.

● 韓中 언론인 교류모임 베이징서 출범(12/15)

- 한국과 중국 언론인들의 교류 모임인 ‘한중화벽지성(韓中和璧之聲)’이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음.
-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한반도 특파원을 역임한 중국 기자가 속한 중한우호협회 매체위원회간의 교류채널인 이번 모임은 양국 매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친선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음.
- 이번 모임에는 옥이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조화로운 소리란 뜻을 담아 ‘화벽지성’이란 명칭이 붙었으며 양국 언론인간 조화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를 담았음.



- 신정승 주중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양국 관계에서 상대방 국가를 보는 창문 역할을 하는 언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언론인들이 양국간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보도 및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 뤼하오차이(羅豪才) 중한우호협회 회장도 축사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임을 통해 언론인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이 상대방 국가의 진면모를 인식하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 모임은 1년에 2번씩 정기모임을 갖는 것 외에 분기별로 한번씩 좌담회를 개최하며 양국 언론인간 공동 취재, 견학,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 등의 방식으로 운영됨.

● **李국방,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 접견(12/15)**

- 이상희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 10월 말 한국에 부임한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음.
-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사님의 부임을 환영하고 국방부를 방문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올해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호 군사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청 대사는 “한·중 양국 관계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긴밀하게 발전한 보기 드문 경우”라며 “더군다나 올해는 중국 해군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가했고 양국 해·공군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는 등 앞으로 양국 군 관계도 긴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음.
- 청 대사는 또 이 장관의 조속한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 장관은 이에 “가용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배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 이 관계자는 “한·중 국방교류 및 군사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청 대사가 외교관이고 부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군사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음.

● **한·중, 17일 베이징서 중남미국장 회의(12/15)**

- 두정수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과 양완밍 중국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국장은 17일 중국 외교부에서 제6차 양국 중남미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음.
- 이 회의에서는 최근 중남미의 정치정세와 국제금융위기가 중남미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이 지역의 정치·경제 정세 전반에 관해 논의하며 양국의 대(對) 중남미 외교정책 및 관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중 중남미 국장회의는 2002년 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국간 중남미 지역 정보와 상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유용한 장으로 기능해왔음.

다. 한·일 관계

●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기술’ 안한다(12/17)

-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현재와 같이 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을 오는 23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10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공개 뒤 한 달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결정은 독도문제를 두고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지난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음.
-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기술이 담기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에는 중학교 해설서와 유사하게 독도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라. 한·러 관계

● 한·러 첫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12/18)

-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첫 차관급 전략대화가 18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렸음.
- 지난 9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권종락 외교1차관이, 러시아에서는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한·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는 물론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국제 금융위기, 이란 핵문제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권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은 짧은 수교역사에 비취볼 때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내실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한미FTA 협상부터 상정까지 일지> (연합뉴스, 12/18)

◇2006년

- ▲ 1월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 ▲ 2월 3일(미국시각 2일)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 ▲ 6월5~9일 = 1차 협상(워싱턴)

◇2007년

- ▲ 6월30일 = 한미 양국,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 ▲ 7월 2일 = 정부, 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2008년

- ▲ 5월29일 = 한미 FTA 비준안 처리 17대 국회 임기내 무산
- ▲ 6월19일 =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수정 있을 수 없다”
- ▲ 7월 1일 = 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안 재의결
- ▲ 11월 2일 = 당정, 한미FTA 태스크포스(TF) 구성
- ▲ 11월 5일 = 청와대, “오바마 정부와 한미FTA 재협상 없을 것”
- ▲ 11월11일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FTA비준, 한미동맹 흔들 수도 있어”
- ▲ 11월12일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FTA 오류 고해성사해야”
- ▲ 11월1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공청회, 민주당 불참
- ▲ 11월13일 = 야당 ‘한미FTA 조기비준 반대’ 의원모임 발족
- ▲ 11월17일 = 이 대통령, 방미 중 미 재계에 한미FTA 협력 당부
- ▲ 11월17일 = 노 전 대통령, “한미FTA, 금융위기와는 무관”
- ▲ 11월17일~23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미국 방문
- ▲ 11월21일 = 선진당, 한미 FTA 31조원 농업보완책 요구
- ▲ 11월24일 = 맹형규 정무수석.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한미 FTA 연내비준 재확인
- ▲ 12월17일 = 박진 외통위원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대비 18대 첫 질서유지권 발동
- ▲ 12월17일 = 민주당, “한미FTA, 美행정부 요청 30일내 비준” 제안
- ▲ 12월18일 = 한나라당, 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2/18/0503000000AKR2008121817230001.HTML>